



답사단이 남산 삼릉계에 위치한 보물 제666호 석조여래좌상을 살펴보고 있다.



남산 삼릉계 인근에는 수많은 불보살이 산재한다. 사진 위에서 왼쪽부터 삿갓골 여래입상, 보물 666호 석조여래좌상, 냉골 마애관음입상. 아래는 보물 제63호 배리삼존불



참가자들이 유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남산 속살을 훑아보니 곳곳에 부처님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방법을 찾아서

경주 남산을 오르는 코스는 다양하다. 포석정과 통일전 주차장, 신라의 발상지 나정 등 올라갈 때마다 색다른 유적과 남산의 맨 얼굴을 만날 수 있다. 그 중 답사코스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곳은 삼릉계곡이다. 삼릉에서 용장계로 넘어가는 길 구석 구석에는 불국토 남산이 숨겨놓은 부처와 보살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많은 불교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곳도 삼릉계 부근이다.

이번 경주 남산 불적답사는 삼릉과 기암 골에 산재한 불·보살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뤄졌다.

남산의 계곡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답사는 삼릉 옆 삿갓골 여래입상으로 찾는 것부터 시작했다. 삿갓골 여래입상은 풍채가 풍만하고 섬세하고 생기가 넘치는 통일신라 중엽의 걸작이다. 위엄이 있다기보다는 자비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두광과 신광으로 구성된 광배는 황홀할 정도다. 머리 뒤에는 보살화가 둥글게 나타나고 그 양가로 연꽃 위에 앉아 활짝 핀 화불들이 나뉜다. 신광에도 당초 잎사귀와 보살화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두광과 신광 가장자리에도 당초무늬가 생겼다.

사실 중국 불상에는 두광과 신광의 가장자리에 불길을 새긴다. 그러나 불길 대신 꽃넝쿨로 표현한 것은 평화를 우리네 조상

들의 마음씨를 알 수 있게 한다. 비운의 왕 경애왕의 흥(陵)을 지나 삼릉에 들어섰다. 본격적인 열천(炎天)의 날씨가 시작됐다. 지난 새벽까지 비가 이어졌다고는 믿기 힘든 기운에 숨이 가빠진다. 그래도 삼릉계곡을 따라 오르니 계곡 물소리가 더위를 식혀준다.

경주 남산은 마사(磨砂)로 이뤄져 비가 내리고 반나절이 지나면 산 아래로 물이 전부 빠져나가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게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의 설명이다. 남산에서 계곡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는 사족도 덧붙였다.

삼릉계 사이사이 펼쳐진 불국토

삼릉 계곡을 따라 5분여를 걸어 오르면 머리없는 부처님과 관음보살 한 분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냉골 석조여래좌상과 마애관음보살입상이다. 마애관음보살입상은 세월의 풍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지만 호상과 수인만은 뚜렷하다. 아슬아슬한 산벼랑위에 조각된 관음보살은 역겹의 시간을 넘어 오묘한 미소를 지어 내고 있다. 최민희 소장의 설명을 들으면 신라인들의 불심을 알 수 있다.

“이 관세음보살이 서 있는 자리는 짐을 지어 공간도 없고 기와 조각도 발견되지 않아 처음부터 노천불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산기슭에서 올려다보며 여경

하면 그 소리를 듣고 하강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산벼랑에 불상을 새긴 것입니다.”

마애관음보살 아래에는 냉골 석조여래좌상, 일명 불두 없는 여래좌상을 만날 수 있다. 머리가 없는 부처님이지만, 어찌로부터 내려오는 가사의 선이 뚜렷하고 선명하다. 그만큼 불두만 있었으면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걸작 불상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존재한다.

삼릉부터 기암골을 지나니

수많은 불·보살상 산재해

부조·선각 등 조성법 '다채'

災天만큼 답사 열기 뜨거워

두 불보살상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마애선각육존불이 있다. 마치 병풍을 쳐놓은 듯한 바위에 아미타삼존상과 석가삼존상을 각각 새겼다. 마애불이지만 선각으로 이뤄져 있다보니 조각이러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운 형상이다. 또한 육존불의 위로 오르니 부처님들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한 물줄과 천정을 만들었던 흔적들이 보인다. 표면이 불규칙한 바위 위에 펼쳐진 자유로운 필치의 조각뿐만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조상들의 신앙의 열정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세월을 이겨낸 부처님들 '감탄'

산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이 가파라진다. 사실 경주 남산은 해발이 500m가 안되는 낮은 산이지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산은 아니다. 울퉁불퉁한 바위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 기암들로 이뤄진 험로(險路)는 산을 오르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한 무리의 바위 군을 헤치고 나오니 단아하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보인다. 바로 보물 제666호 경주삼릉계곡석불좌상이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훼손이 심했다. 불두는 떨어져 다시 붙였고, 광배는 군데군데 깨어져 보수한 흔적이 많았다.

그래도 광배의 화려함에는 눈을 땔 수가 없다. 가장자리에 타오르는 불꽃은 춤추는 듯 역동적이며, 생기가 넘친다. 반면 두광은 고요한 꽃송이로 마무리했다. 이는 번뇌로 번잡한 사바세계에서 적정에 들은 부처님의 고요한 심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것이다. 최 소장 역시 “이렇게 생기 넘치는 석불의 광배는 남산뿐만 아니라 전 신라시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걸작”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래입상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주위 환경과의 조화다. 어느 방향에서 봐도 아름다운 여래입상은 곁에 있는 바위들이며, 계곡의 여울 등과 잘 조화되도록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산 정상과 세상을 보는 부처님

양대 봉우리 중 하나인 금오봉을 오르는 길 사이에는 남산에서 두 번째 큰 마애불인 상선암 마애불상이 있으나 지금은 생태

보존과 문화재 보수공사를 이유로 출입이 금지돼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친견을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필자에게는 그 아쉬움이 더 컸다.

상선암을 통해 기암골로 자리를 옮기니 곳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대부분이 마애불에 석조와 선각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것들이지만 그 수법들이 매우 다채롭다. 수법만큼 눈길을 끄는 것은 불·보살상의 시선이다.

최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남산에서 독존인 경우가 18곳, 삼존이 6곳, 이존이 2곳으로 대부분의 시선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적지 않는 불상이 가까운 곳의 봉우리를 보거나, 계곡 건너 토함산, 망산 등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고부조인 경우에는 가까운 봉우리를, 저부조나 선각인 경우 계곡을 건너 멀리 산을 향하고 있다.

“남산에 올라 마애불을 답사할 때 단순히 불상만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 그 불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선의 방향성은 신라인들이 불상을 조성함에 있어 특정한 방향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남산 아래 배동에는 보물 제63호로 지정된 배리삼존불이 있다. 본존 높이 2.75m, 왼쪽 협시상 높이 2.36m, 오른쪽 협시상 높이 2.36m이다. 조선시대에 무너진 것을 1923년 복원했다.

얼굴과 몸이 어린아이를 묘사한 점은 장창굴 삼존상과 같이 장식적이고 생경한 것은 신라 조각사상 새로운 양식의 등장이다. 이같이 대중적이고 감직한 작품이 불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나, 동안과 균형을 잃은 체구 등의 수법은 따뜻한 생명을 실감하게 하는 자신감이 넘친 기법이다.

삼존불이라고 하지만 최 소장은 양협시보살의 양식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본존과 좌협시보살만 함께 조성되고 우협시보살은 후대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여래상과 보살상이 동시에 조성돼 모셔지는 ‘불보살 이존’이라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독특하게 창안된 ‘불보살 이존’이라는 전혀 새로운 형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불상을 조성함에 있어서 독존 아니면 삼존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이존 형식도 존재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리 삼존불을 지나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왔다. 산 어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등뒤의 땀을 식혀 준다. 이것 또한 부처님의 가피일까.

경주 남산=신종일 기자

현대불교신문사·신라문화원

8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금강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 일시 : 8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 www.silla.or.kr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주소_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